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이기쁨 · 지상훈*

2022년 8월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규모는 증가하고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감소하였다. 2022년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큰 폭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9만 명 증가했는데,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둔화된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지난 2년간 임금이 정체되었던 비정규 상용직에서도 증가하면서 정규직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완화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도 증가하면서 임금 외 근로조건도 개선되었다.

1. 머리말

2022년은 큰 폭의 고용 증가가 나타난 한 해였다. 증가한 취업자의 대부분은 상용직으로 2022년 1~11월 평균 약 82만 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임금근로자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하면서 2022년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보다 9만 명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 이기쁨=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peum@kli.re.kr).

지상훈=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anghoonjee@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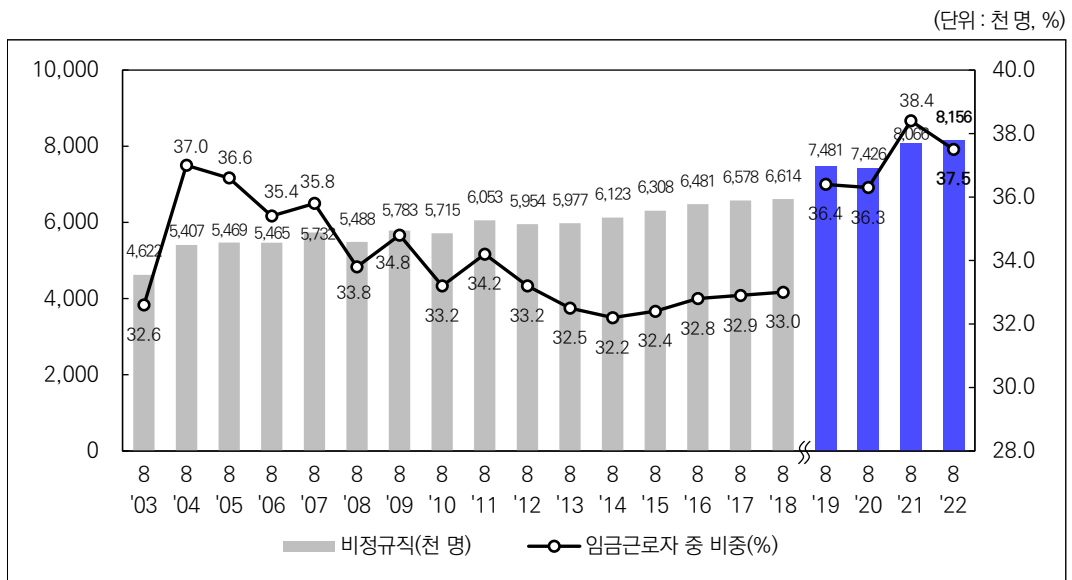
II. 2022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2022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815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 명 증가했지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p 감소한 37.5%이다. 8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0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임금근로자가 73만 2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정규직은 전년대비 64만 1천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9만 명 증가했다. 2021년에 비정규직이 큰 폭 증가한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2022년 비정규직 증가 규모도 적지는 않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둘째,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음의 세 가지 근로형태를 포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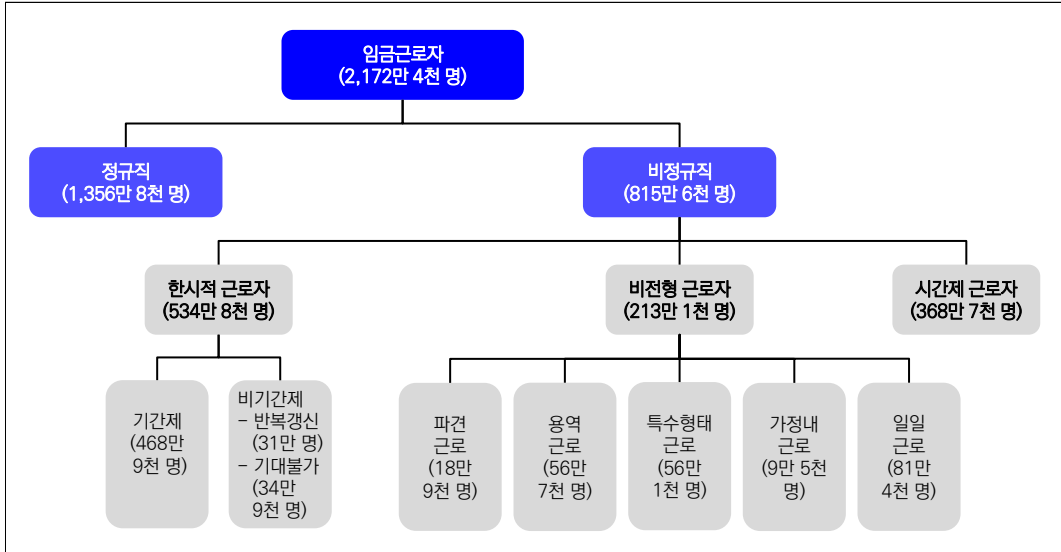


주 : 1) 2019년 이후의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추가로 포착된 시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으므로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 가능함.

2) 반올림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와 정규비정규직 총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2] 2022년 8월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및 규모



주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2년 8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반복갱신 근로자, 현재 하는 업무의 종료, 목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 근로자이다. 이 중에서 2021년 큰 폭 증가했던 기간제 근로자는 2022년에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도 전년대비 상당폭 증가했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 영향이 있다. 비정규직 각 근로형태는 유형 간 중복이 가능하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이면서 시간제 근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가 증가하면 시간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보면,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한편, 비전형 근로자 규모 감소에 가장 영향이 컸던 근로형태는 일일근로다. 일일근로의 약 60%가 종사하는 건설업에서 일일근로가 큰 폭 감소했다.

1.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 비중은 감소

2022년은 임금근로자 증가가 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임금근로자가 큰 폭 증가했는데, 2022년에는 임금근로자 회복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났던 2021년 상황과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감소했던 임금근로자는 2021년 8월 기준 전년대비 54만 7천 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이 64만 명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2022년 8월에

는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더 확대되어 73만 2천 명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의 약 88%가 정규직이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보다 64만 1천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 명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정규직이 5.0%, 비정규직이 1.1%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22년 임금근로자 증가에서 가장 주요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었다. 상용직은 2022년 연중 월별로 적게는 60만 명대 후반에서 많게는 9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했다. 8월 기준으로도 상용직은 전년보다 90만 7천 명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 8월 상용직 증가 규모 중 가장 큰 수치이다.

종사상 지위에 의한 구분과 정규·비정규 분류는 그 기준이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다. 고용형태상으로 정규직이지만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일용직일 수 있고, 비정규직이어도 상용직일 수 있다. <표 1>에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증감이 나타나 있다.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는 전년대비 76만 1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는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했다. 비정규직에서도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비정규_상용직은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편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되었으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다. 이들은 정규직이면서 임시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법과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정규_임시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2년에도 정규_임시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20~50대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정규_상용직이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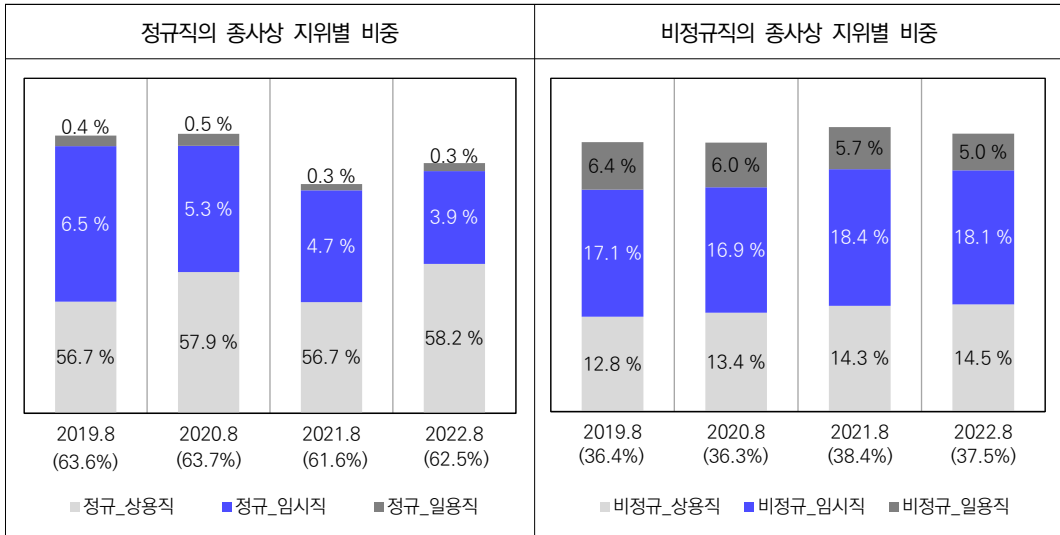
<표 1> 정규직·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규모 및 증감

(단위: 천 명)

	2019. 8. (A)	2020. 8. (B)	2021. 8. (C)	2022. 8. (D)	증감 (B)-(A)	증감 (C)-(B)	증감 (D)-(C)
정규_상용	11,651	11,839	11,892	12,653	188	54	761
정규_임시	1,335	1,079	980	843	-256	-100	-137
정규_일용	92	102	55	72	10	-48	18
비정규_상용	2,636	2,731	3,001	3,148	94	270	147
비정규_임시	3,521	3,460	3,872	3,930	-62	412	58
비정규_일용	1,323	1,235	1,193	1,078	-88	-42	-1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3] 정규직·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비중 변화



주 : 1) 각 연도 임금근로자=100일 때 정규직·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2) () 안은 각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3) 반올림으로 인해 정규비정규직의 지위별 비중과 정규비정규직 총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56.7%에서 2022년 8월 58.2%로 1.5%p 상승했다(그림 3 참조). 임금근로자에서 정규_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고, 2021년 증가규모가 가장 컸던 비정규 임시직은 2022년 소폭 증가에 그치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 세부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변화

<표 2>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규모를 나타낸다. 2022년 8월 기준 한시적, 시간제 근로자는 증가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4.6%, 시간제 근로자는 17.0%이며 두 근로형태 모두 전년과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전년보다 규모가 감소한 비전형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p 감소했다.

비전형 근로자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일일근로 외 다른 유형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파견 및 용역 근로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고, 특수형태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정 내 근로는 소폭 증가했다. 이 근로형태들은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일일근로는 전년보다 14만 1천 명이 감소했는데 건설업에서 7만 5천 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시적 근로자는 전년대비 17만 7천 명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을 설

정한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 20% 이상으로 증가한 후 2022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큰 폭 증가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2022년 기간제도 증가 규모가 적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가 큰 폭 증가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볼 수 있는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업(65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고, 민간부문에서는 교육, 숙박음식업, 제조업, 사업서비스,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기간제 형태의 노동수요가 컸다. 2022년에도 증가한 기간제 근로자 15만 2천 명 중에서 80%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증가했다.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반복갱신 근로는 정규직과 임금과 근로조건이 비슷한 고용형태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볼 수 있다. 반복갱신 근로자는 2022년 8월 5만 2천 명 증가했다. 반복갱신 근로자는

〈표 2〉 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증감

(단위: 천명, %)

	규모					비중		
	2020. 8. (A)	2021. 8. (B)	2022. 8. (C)	증감 (B)-(A)	증감 (C)-(B)	2020. 8.	2021. 8.	2022. 8.
임금근로자	20,446	20,992	21,724	547	732	100.0	100.0	100.0
정규직	13,020	12,927	13,568	-94	641	63.7	61.6	62.5
비정규직	7,426	8,066	8,156	640	90	36.3	38.4	37.5
① 한시적 근로	4,608	5,171	5,348	564	177	22.5	24.6	24.6
기간제	3,933	4,537	4,689	605	152	19.2	21.6	21.6
반복갱신	238	259	310	21	52	1.2	1.2	1.4
기대불가	437	375	349	-62	-27	2.1	1.8	1.6
② 비전형 근로	2,073	2,278	2,131	205	-147	10.1	10.8	9.8
파견	164	211	189	46	-22	0.8	1.0	0.9
용역	552	585	567	33	-18	2.7	2.8	2.6
특수형태근로	498	560	561	62	1	2.4	2.7	2.6
가정 내 근로	49	79	95	30	16	0.2	0.4	0.4
일일근로	896	955	814	59	-141	4.4	4.5	3.7
③ 시간제 근로	3,252	3,512	3,687	260	175	15.9	16.7	17.0

주 : 1) 임금근로자 중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증감은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큰 폭 감소했었고, 이후로 2년 연속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기대불가 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만두기를 요구하거나, 현재 하는 업무의 종료,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인데,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기대불가 근로자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중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시간제 근로자 규모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2022년 8월에 전년보다 17만 5천 명 증가했지만, 다른 고용형태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의 증가 규모는 3만 1천 명 정도다. 시간제 근로자는 숙박음식, 교육, 제조업 등에서 증가했는데 이 업종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업종들이기도 하다. 다른 고용형태와의 중복을 제거한 순수한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숙박음식업에서 두드러졌으며 청년층에서 증가했다.

〈표 3〉에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신규 입직자 수와 평균 근속기간이 나와 있다. 근속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2022년 정규직은 신규 입직자가 전년

〈표 3〉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신규 입직자 수 및 평균 근속기간

(단위: 천명, 개월)

	신규 입직자 수(근속기간 1년 이내)					평균 근속기간		
	2020. 8. (A)	2021. 8. (B)	2022. 8. (C)	증감 (B)-(A)	증감 (C)-(B)	2020. 8.	2021. 8.	2022. 8.
임금근로자	6,374	6,762	6,875	388	113	71.8	70.1	72.2
정규직	2,206	2,282	2,402	76	120	96.5	95.8	97.2
비정규직	4,168	4,480	4,473	312	-7	28.7	29.0	30.4
한시적 근로	2,464	2,738	2,852	274	114	29.4	29.2	29.7
기간제	2,105	2,405	2,502	300	97	29.2	29.4	30.2
반복갱신	52	94	116	42	22	60.7	41.2	37.9
기대불가	307	239	234	-69	-5	13.7	17.4	15.6
비전형 근로	1,266	1,382	1,219	116	-163	29.2	29.7	33.4
파견	75	95	83	19	-11	38.6	41.9	37.5
용역	225	229	226	5	-3	35.3	35.5	37.7
특수형태근로	134	179	140	45	-39	65.8	62.1	70.5
가정 내 근로	30	47	54	17	7	29.6	25.7	30
일일근로	885	936	808	51	-128	0.7	1.7	0.4
시간제 근로	2,123	2,279	2,368	156	88	20.7	21.3	2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보다 12만 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신규 입직자가 소폭 감소했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증가분의 거의 절반이 근속기간 1년 이내의 신규 입직자였다. 2021년 비정규직 신규 입직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2년 신규 입직자 수 증감을 볼 때 전년 기저영향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2022년 비정규직 신규 입직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28.7개월이었던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은 2022년 30.4개월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 보면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의 신규 입직은 증가했지만 비전형 근로자 신규 입직자 수는 감소했다. 2022년은 기간제 신규 입직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신규로 취업한 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둔화된 것이 눈에 띈다. 보건사회복지업의 기간제 신규 입직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신규 입직자가 줄었던 2020년에도 12만 6천 명 증가했고 2021년에도 14만 1천 명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1만 9천 명 증가하였다. 2022년 기간제 신규 입직자는 이전 두 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었던 보건사회복지업보다는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에서 더 증가했다. 비전형근로 신규 입직자는 일일근로 신규 입직자가 큰 폭 감소(건설업)하면서 전년보다 감소했고, 2022년 신규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는 다른 고용형태와의 중복을 제거하면 전년보다 4만 명 증가했는데 숙박음식업에서 증가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2022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2022년 임금근로자는 전년에 이어 대폭 증가했다. 2021년 임금근로자 증가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22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정규직이 주도하였다. 특히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큰 폭 증가했다.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도 정규직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비정규직 신규 입직자가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난 영향이다. 비정규직 세부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것과 일일근로자 감소로 비전형 근로자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규 입직자 역시 민간부문에서 더 증가했다.

Ⅲ.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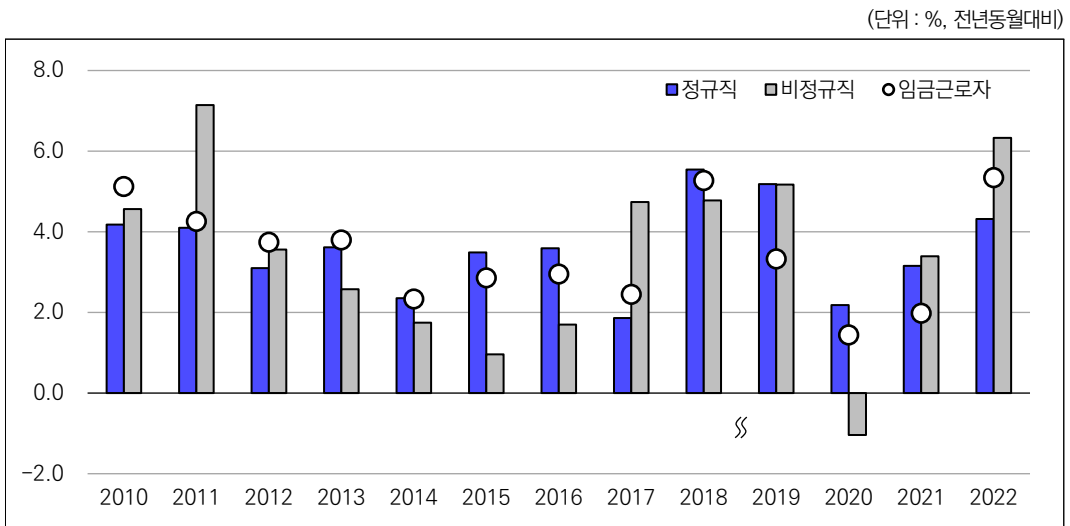
2022년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지만 고용은 정규직을 중

심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1. 임금과 근로시간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22년 개선이 있었다(그림 4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8만 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하여 최근 2년간 상승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임금 증가율을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4.3%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6.3% 증가하여 2022년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20~2021년 약 53.0%에서 2022년 54.1%로 개선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되었다.

[그림 4] 정규직, 비정규직 및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증가율



주 :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은 세부형태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시적, 비전형 및 시간제 근로자에서 고르게 상승하였다(표 4 참조). 세부형태별로 파견, 일일 및 시간제 근로자 등에서 2022년 임금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파견 및 일일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주로 건설업에서 임금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었다. 반면 더 눈에 띄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다. 파견 및 일일 근로자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취업자 수 증가를 동반하며 임금이 증가

하였다. 2022년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9.1%, 시간당 임금은 7.7%로 최저임금 상승률(5.05%)을 상회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서비스업 업황이 회복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¹⁾ 월평균 임금 기준 시간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별 임금 상승률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에서 고용 비중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서비스 및 보건복지 등에서 5.7~11.9% 증가하였고 제조업, 사업관리·지원 및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도 6.6~19.9% 증가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임금 증가가 확인되었다.

반면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전년대비 0.1시간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었지만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0.4시간 감소하여 더 큰 폭으로 감소

〈표 4〉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및 평소 근로시간의 수준 및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근로형태	월평균 임금(만 원)		시간당 임금(천 원)		근로시간(시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임금근로자	273.4(2.0)	288.0(5.3)	16.0(2.6)	16.9(5.5)	38.7(-1.0)	38.6(-0.3)
정규직	333.6(3.2)	348.0(4.3)	18.4(3.5)	19.2(4.5)	42.5(-0.5)	42.4(-0.2)
비정규직	176.9(3.4)	188.1(6.3)	12.3(3.2)	13.1(7.1)	32.6(-0.3)	32.2(-1.2)
한시적 근로	187.1(0.8)	199.0(6.4)	12.4(1.7)	13.3(6.5)	33.7(-1.7)	33.5(-0.6)
기간제	188.8(0.6)	201.8(6.9)	12.6(1.9)	13.4(6.8)	33.5(-1.5)	33.4(-0.3)
반복갱신	185.6(-15.9)	192.2(3.6)	11.2(-13.3)	12.0(6.7)	37.9(-6.0)	37.1(-2.1)
기대불가	167.8(12.8)	167.2(-0.4)	11.6(8.7)	11.9(2.1)	34.0(3.3)	32.2(-5.3)
비전형 근로	196.7(6.1)	207.4(5.4)	12.1(7.3)	13.0(7.3)	37.8(-1.0)	37.2(-1.6)
파견	214.8(- 1.2)	240.1(11.8)	13.0(3.0)	14.2(9.4)	38.7(-0.8)	38.7(0.0)
용역	195.5(2.8)	201.3(3.0)	11.3(4.3)	11.7(4.0)	41.0(-1.2)	40.4(-1.5)
특수형태근로	223.0(3.8)	232.3(4.2)	13.3(4.4)	14.3(7.4)	39.0(0.0)	38.3(-1.8)
가정 내 근로	148.0(33.5)	148.6(0.4)	12.1(21.3)	11.6(-3.7)	30.0(6.0)	29.0(-3.3)
일일근로	177.6(10.4)	189.8(6.9)	11.7(11.0)	12.7(9.2)	35.3(-0.8)	34.3(-2.8)
시간제 근로	91.6(1.4)	99.9(9.1)	10.9(0.4)	11.7(7.7)	19.6(0.0)	19.7(0.5)

주 : 1)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임.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 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4)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1) 워크넷 구인 자료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 구인은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보건복지 등에서 2021년에 이어 2022년 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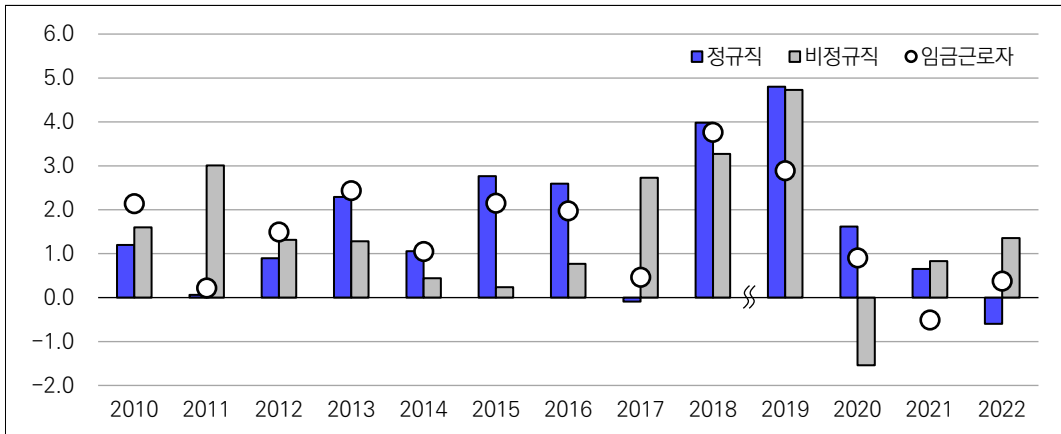
하였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는 4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감소하고 1~14시간 및 15~35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비정규직 세부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반복갱신과 기대불가의 근로시간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비전형 근로자 역시 파견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태에서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하며 여타 근로형태와는 달리 근로시간을 유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근로시간 변화를 감안한 시간당 임금의 증감 역시 2022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가정 내 근로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에서 전년대비 낮게는 2.1%, 높게는 9.4% 증가하였으며, 특히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일일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변동이 작았다(그림 5 참조). 물가는 2021년 전년대비 2.5% 증가한 데 이어 2022년(1~11월)에는 4.9%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를 이어갔다. 이에 임금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수준에 그쳤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1.4% 증가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0.6% 감소하였다.

[그림 5] 정규직, 비정규직 및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2)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산출함. 2022년은 1~11월 평균을 활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 변화를 임금 계층별로 보면 주로 비정규직은 고임금 근로자의 성장이 임금 상승을 견인한 반면 정규직은 모든 계층에서 임금이 고르게 감소하였다(표 5 참조). 정규직은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저임금과 중임금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평균 실질 임금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함

과 동시에 평균 실질 임금도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확대된 반면 평균 임금은 감소하였고 저임금 근로자는 비중과 평균 임금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중임금과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비정규직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질 임금이 증가하여 계층 간 불평등은 다소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 근로형태 및 임금 계층별 근로자 비중과 평균 임금의 수준 및 증감

(단위: %, %p, 만 원, 전년동월대비)

정규직	비중			평균 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2020	5.5(-0.9)	65.4(4.0)	29.1(-3.2)	121.3(-4.5)	250.1(10.1)	525.7(20.9)
2021	4.8(-0.7)	65.7(0.3)	29.5(0.4)	127.3(6.0)	251.5(1.4)	522.5(-3.2)
2022	3.4(-1.4)	64.4(-1.3)	32.2(2.7)	121.9(-5.4)	244.8(-6.7)	502.5(-20.0)
비정규직	비중			평균 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2020	48.8(0.5)	45.3(0.5)	5.9(-1.0)	80.1(-2.8)	225.9(4.4)	503.0(2.3)
2021	48.6(-0.2)	45.5(0.2)	5.9(0.0)	81.6(1.5)	228.1(2.2)	496.6(-6.4)
2022	46.0(-2.6)	47.0(1.5)	7.1(1.2)	77.9(-3.7)	220.7(-7.4)	502.7(6.1)

주: 1)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사용함.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2)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중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수준 이상, 3/2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고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3) 근로자 비중은 각각 전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서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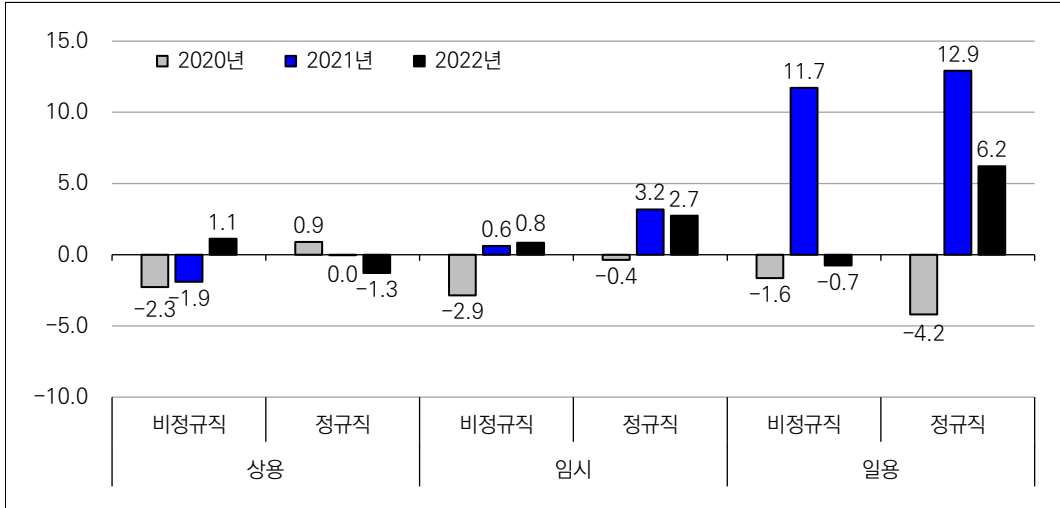
4) 실질 임금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기반으로 산출함. 2022년은 1~11월 평균을 활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다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 변화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았다(그림 6 참조). 비정규 상용직의 경우는 2020년과 2021년 임금이 감소하여 지난 2년간 임금 성장이 후퇴하였지만 2022년에는 1.1% 증가하면서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고용 회복과 함께 개선되었다. 반면 정규 상용직은 2021년 임금이 정체되었고 2022년에는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임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2년 연속 실질 임금이 상승하였다. 비정규 임시직의 경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증가세를 소폭 키우며 임금이 증가하였다. 반면 비정규 일용직은 매우 큰 폭의 임금 성장을 보였던 2021년도에 비해 2022년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비정규직의 2022년 실질 임금 상승은 정규직과는 양상이 달랐으며 특히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종사상 지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월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2)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산출함. 2022년은 1~11월 평균을 활용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 비정규직 가입률 및 수혜율 개선

2022년은 임금 외 근로조건에도 개선이 있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가입률의 차이가 크다. 또한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민연금의 기준인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우선 상용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90%를 상회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91.2%로 정규직 가입률보다도 더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정규직 비중이 높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2년 들어 사회보험 가입률의 개선이 나타나는 곳은 임시직과 일용직인데, 임시직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더 높은 편이나 고용보험의 경우는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수형태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에서 가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정규 임시직은 가입률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 임시직에서는 한시적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에서 가입률이 감소하면서 정규 임시직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일용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지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소폭 개선되었다. 비정규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는 고용 비중이 큰 건설업에서 늘어난

영향으로 2021년 17%에서 2022년 19.6%로 증가하였다.

복지제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가 더 크게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상여금은 상여금, 유급휴가 및 시간외수당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2022년에 비정규직의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이 개선되었다. 반면 임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반적으로 수혜율이 후퇴되는 모습이었다. 정규 임시직은 퇴직금, 상여금 및 유급휴가 수혜율이 감소한 반면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증가하였다. 비정규 임시직은 퇴직금 및 유급휴가 수혜율은 감소하고 상여금 수혜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일용직은 복지제도의 수혜율도 매우 낮지만 비정규직은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의 개선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증가했던 반면 퇴직금 수혜율은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표 6〉 종사상 지위별, 근로형태별 2022년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 수준 및 증감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복지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상용	정규직	99.4(0.2)	85.4(0.7)	99.2(0.1)	99.6(0.1)	93.4(1.9)	91.1(0.4)	72.5(2.0)
	비정규직	95.7(0.4)	91.2(-1.4)	95.5(0.4)	97.5(0.5)	76.6(3.5)	79.8(-0.3)	56.8(2.2)
임시	정규직	36.1(4.3)	46.3(4.5)	36.7(2.3)	20.8(-6.7)	34.0(-4.9)	9.9(-2.1)	19.7(4.3)
	비정규직	31.2(-2.0)	51.8(2.4)	31.6(-2.1)	11.5(-3.7)	22.1(1.4)	15.8(-0.9)	21.2(0.4)
일용	정규직	3.0(-1.1)	23.2(4.8)	3.0(-1.1)	0.0(-7.2)	15.3(6.7)	3.1(0.5)	21.9(1.9)
	비정규직	3.1(1.7)	17.4(2.5)	3.5(1.2)	0.4(-0.3)	4.1(1.1)	0.6(0.4)	11.6(1.8)

주 :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 전체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늘었고 복지제도 수혜율도 증가하여 근로조건 전반에서 개선이 나타났다. 다만, 세부형태별로는 차이가 있다(표 7 참조). 한시적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소폭 후퇴하였고 퇴직금 수혜율도 줄었지만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증가하였다. 비전형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증가하였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은 감소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증가하였다.

2022년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축소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활용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활용자 비중은 정규직이 2022년 20.2%로 전년대비 1.3%p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9.0%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의 감소는 주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활용자 비중 감소에 기인한 반면 비정규직은 재택 및 탄력적 근무제 활용자 비중도 줄어들었지만 선택적 근무 시간제 활용 비중은 증가하여

〈표 7〉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2022년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 수준 및 증감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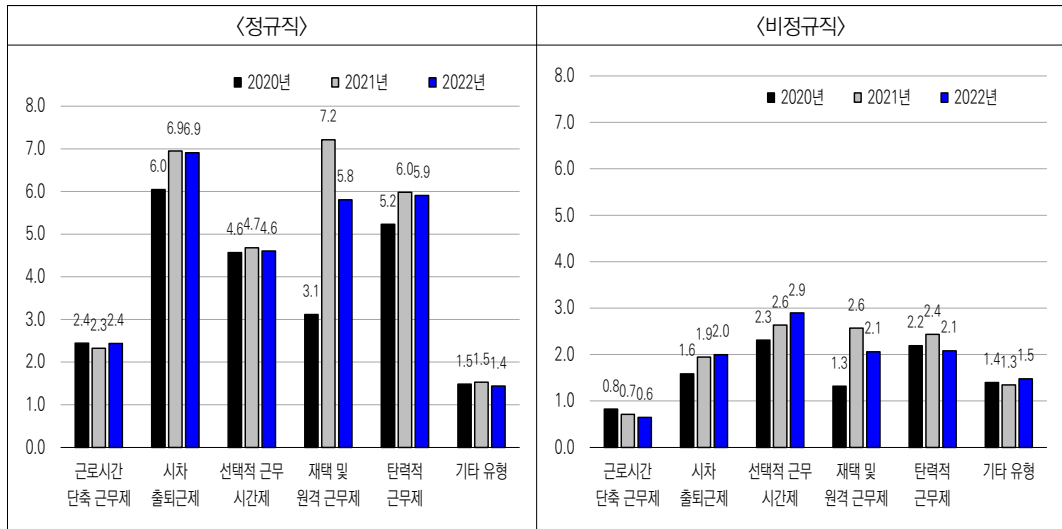
근로형태	사회보험			복지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비정규직	55.1(1.2)	64.2(2.2)	55.2(1.0)	46.7(0.3)	43.0(3.6)	41.1(1.0)	35.1(2.2)
한시적 근로	72.2(-1.2)	74.6(-1.5)	72.4(-1.0)	61.1(-1.1)	53.1(3.2)	55.8(-0.1)	44.0(1.7)
비전형 근로	27.7(2.3)	59.1(9.2)	28.2(1.8)	24.3(0.9)	24.1(2.7)	19.5(0.5)	18.8(0.0)
시간제 근로	31.9(-1.5)	41.6(1.7)	31.9(-1.5)	26.2(-1.2)	25.5(1.5)	18.0(-1.3)	22.6(2.2)

주 :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7〉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별 비중

(단위 : %)



주 : 1) 각각 전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모로 함.

2)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는 복수 응답 기준으로 그 합이 전체 활용자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변화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그림 7 참조).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재택 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그 외의 형태를 사용하는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정체된 상태이다(표 8 참조). 정규직의 가입률은 2022년 17.8%로 전년대비 0.6%p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은 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마찬가지로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은 2021년 증가한 이후 정체된 상태이다. 반면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조가

입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의 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정규직은 84.1%, 비정규직은 42.1%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들 중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2년 정규직은 전년대비 2.7%p 감소한 60.9%를 기록하였고 비정규직은 1.6%p 감소한 51.9%를 기록하였다. 즉 노조 가입 자격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그에 비해 실제 가입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유형별 비율 추이

(단위 : %)

	노조 가입자 비율		노조 존재 사업체 근로자 비율		노조 가입 자격 보유자 비율		조합원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19	17.6	3.0	31.8	14.5	81.2	36.1	68.2	57.9
2020	17.6	3.0	32.8	14.4	81.7	37.0	65.7	56.1
2021	18.4	3.3	35.1	15.4	82.4	40.3	63.6	53.5
2022	17.8	3.3	34.9	15.2	84.1	42.1	60.9	5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IV. 맺음말

2022년 8월 실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2022년의 임금근로자 증가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그중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증가했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도 민간부문에서 많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로 볼 수 있는 보건사회복지업은 신규 입직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다. 한편, 건설업에서의 일일근로자가 감소한 영향이 작용하면서 비전형 근로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셋째,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은 정규직을 상회하였으며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도 증가하였다. 다만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2021년을 정점으로 2022년에는 활용자 비중이 재택 및 원격 근무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노조 가입률은 정체된 모습이었다. **KLI**